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 비교 연구¹⁾

윤 인 경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Comparison of 6th Curriculum and 7th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the Middle School

Yoon, In-K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s to how much of changes has occurred in the newly revised Home Economics Textbooks required by the 7th Curriculum as compared to those by the former 6th Curriculum, and to seek future policy direction which can be improved even better, if any, for further revision. To implement this proposal, this study employed 8 different textbooks published among 12 textbooks developed for the 7th Curriculum for data b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It was covered such areas of change and develop in the composition of category and system in the Home Economics Textbooks required by the 7th Curriculum as compared to those by the former 6th Curriculum. The whole system of textbook was composed of cover page, the inside of a book cover, the title page, introduction, table of contents, appendices. It was same in the total pages with the exception of table of contents, appendices, the inside of a book cover and it was much alike in contents of introduction. In the aspect of the unit system of the textbooks, their whole flows were similar to each other, but the writers' intention and the stress on the focal points had appeared well in topic introduction and texts for the units of the textbooks. In addition, it can be said desirable that much more middle school teachers took a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as textbook writers than before. In the organizational aspect of the sub-area organization of textbooks in the 7th Curriculum, it was not dispersed in grade 1, 2, and 3, but was centralized in a certain grade to increase its efficiency. The number of activity and experiment & practice that students could try to do actually were drastically increased compared to the 6th Curriculum, but it showed a wide difference between textbooks.

1) 교신저자 : 윤인경(ink52@hanmail.net)

주제어(Key Word) : 제 7차 교육과정, 1종(국정)도서, 2종(검인정)도서, 가정교과서의 체제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체계화한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수·학습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수·학습은 대부분 교과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경우, 5차 교육과정까지는 1종(국정)도서로서 교육부나 연구개발기관에서 발행한 단일본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제 6차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는 2종(검인정) 도서로서 각각 8종, 12종에 이르며, 교과서의 구성 체제나 지도 내용의 전개 방식 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체제, 특성을 윤인경(1996, 1997)이 연구한 제 6차 교과서와 비교해 봄으로써 일선 가정과 교사의 새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교수·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크게 2부분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체제를 비교 분석한다.

- 1)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전체 쪽 수, 겉표지, 면지, 화보,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 등)
- 2)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단원표지, 주제의 도입·본문 정리 및 평가, 단원 정리 등)
- 3) 교과서 집필자의 구성(집필자 수, 집필자의 소속)

2. 제 6차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지도 영역과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 1) 영역의 구성과 비중
- 2) 영역별 구성 내용과 비중
- 3) 학년별 활동 및 실험·실습 수와 주제
- 4)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수

III. 연구 방법

연구의 대상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2001년-2003년도에 개발된 12종 교과서 가운데, 6차와의 비교를 위하여 6차와 공통적인 출판사의 교과서로 비교적 현장에서 채택 비율이 높은 8개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 영역으로 하였다. 표기상 편의를 위하여 각 교과서를 가나다 순서에 따라 A-H로 표시한다.

〈표 1〉 연구대상 교과서

순서	출판사	저자
A	교육연구사	윤인경 외 2
B	(주)두산	이기영 외 4
C	동화사	성화경 외 5
D	(주)지학사	유효선 외 3
E	(주)천재교육	이승신 외 3
F	대한교과서	박정숙 외 3
G	금성출판사	한성숙 외 2
H	교학사	이혜자 외 3

본 연구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과 기술적(discriptive) 연구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과정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분석한 내용의 비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집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해 통계 처리하였다.

IV.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6차의 가정 교과서와 새로 개정된 7차의 중학교 1, 2, 3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 영역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술·가정 교과서 전체에 적용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V. 연구 결과

연구 내용에 따른 제 6차와 7차 교과서의 구성 체제, 지도 영역과 내용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서의 체제

1) 교과서의 전체 체제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에서는 전체 쪽수, 걸 표지, 면지,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 등을 살펴보았다. 6차에 비해 우선 외형적으로 교과서의 크기가 국판에서 4×6배판으로 커졌고, 전체적으로 색도가 칼라화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색감을 주고, 흥미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커다란 변화로 들 수 있다.

교과서 전체적 체제에서 보면, 교과서 전체가 칼라화됨에 따라 6차의 '화보' 부분이 7차에서는 없어졌고, 1학년의 전체 쪽수는 6차는 평균 201쪽, 7차는 평균 92쪽이다. 이와 관련해서 단원 수, 주제 수가 거의 절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학년의 전체 쪽수는 6차 평균 105쪽, 7차 평균 119 쪽으로, 쪽수가 약간 증가하였다. 이것은 시간 배당이 1학년에 비해 많으며 교과서 내의 그림, 사진의 양과 영역별 활동 및 실험·실습 수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목차에서 단원의 수가 6차(3~4단원)에 비해 7차에서는 축소(2단원)되었고, 주제에 있어서도 6차(8~11개)보다 축소(6~7개)되었다. 3학년의 전체 쪽수는 평균 106쪽, 7차 평균 104쪽으로 큰 변화가 없다. 목차에서 6차는 단원 수가 1개 교과서만(4개) 제외하고 3개이며, 주제 수는 6차보다(9~12) 훨씬 감소(6~7개)하였으며, 소주제 수도 6차(평균 27개)보다 7차는 많이 감소하였다(18개).

2)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는 단원표지, 주제의 도입·본문·정리 및 평가, 단원정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차와 7차에서 전체적 구성의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으며, 주제의 도입부분에서 주제 명, 주제도입, 학습 목표를 다루고 있는 것은 비슷하나, 7차의 4개의 교과서에서 각각〈만화로 여는 세상〉, 〈먼저 읽기〉〈생각해보기〉, 〈학습 준비활동〉, 〈생각열기〉 등의 활동이 학습자의 동기 유발과 흥미유발을 위한 내용으로서 더 첨가 되어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본문 전개에서도 6차는 활동사례, 토의, 연구 등의 활동이 적은 수의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반면 7차 교과서에서는 8종 모두 다양한 활동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3) 교과서 집필자의 구성

교과서 집필진은 6차는 1, 2, 3학년 공히 총 50명, 평균 6명에 비해 7차는 1학년의 경우 약 절반(총 27명, 평균 3명)으로 줄었고, 2학년과 3학년은 절반(총 25명, 평균 3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6차 교과서의 4개 영역이 2개 영역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필진의 구성에서 1학년의 6차는 83%가 대학교수이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10%에 불과했던 것이 7차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67%로 증가하였다. 2학년과 3학년의 6차는 86%가 대학교수이고, 중·고등학교 교사는 10%에 불과했던 것이 7차에서는 36%가 대학교수이고, 중·고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60%로 증가하여 교육현장과 교과서의 거리를 좁혀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학교 가정 교과서의 집필진중 6차의 중·고등학교 교사 10%중에서 중학교 가정교사는 4.0%였던 것에 비해 7차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교사 60% 중 중학교 교사의 비율이 40%로 크게 높아졌다.

2. 교과서의 지도영역과 내용

1) 영역의 구성과 비중

영역의 비중은 교과서의 머리말, 목차, 부록을 제외한 총 쪽수에 대해 각 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쪽수의 비율을 본 것으로, 중학교 기술·가정1의 가정 영역 구성은 〈표 2〉와 같다.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는 1학년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의 4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2 학년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3학년은 가족생활, 식생활, 주생

〈표 2〉 영역 구성 및 비중

(단위 : %, () : 쪽수)

영역	쪽수합계	6차	영역	쪽수합계	7차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17.8 (66.3)	가족과 일의 이해		12.3 (34.9)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17.7 (65.8)	가정 자원과 환경의 관리		17.0 (48.3)
식생활		32.7 (121.3)	생활기술 (식생활)		33.5 (94.9)
의생활		22.1 (82.1)	생활기술 (의생활)		20.2 (57.3)
주생활		9.7 (36.0)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주생활)		17.0 (48.3)
총쪽수		100 (371.5)	총쪽수		100 (283.7)

활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면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1학년에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식생활)의 2개 영역과 2학년에 생활기술(의생활),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영역, 3학년에서는 생활기술(식생활)과 생활 자원과 환경 관리(주생활)의 2개 영역으로 되어 있다. 영역의 구성과 비중을 보면 6차와 비교해서 7차에서는 양적으로 1/3가량 축소되었다.

2) 영역별 구성 내용과 비중

영역별 비중은 가족생활 영역과 가정자원과 관리 영역, 의생활 영역은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그중 비중

이 가장 많이 축소된 영역은 가족생활 영역이다. 반면에 식생활과 주생활 영역은 비중이 늘었으며, 특히 주생활 영역의 비중은 57% 정도 증가하였다.

가족과 일의 이해 영역에서의 구성 내용과 비중은 〈표 3〉에서와 같이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가정생활의 중요성, 청소년의 특성,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 발달 특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는 청소년의 특성, 성과 이성교제, 나와 가족의 3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 쪽수는 큰 변화가 없고 영역구성 내용과 비중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에서의 구성 내용

〈표 3〉 가족과 청소년기 발달 영역 구성 내용 및 비중

(단위 : %, () : 쪽수)

6차	평균	7차	평균
가정생활의 중요성	22.4 (7.8)	나와 가족	30.4 (9.5)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18.1 (6.3)		
청소년기 발달 특성	59.6 (20.6)	청소년의 특성	38.1 (11.9)
		성과 이성교제	31.4 (9.8)
총 쪽수	100 (34.6)	총 쪽수	100 (31.2)

〈표 4〉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영역 구성내용 및 비중

(단위 : %, () : 쪽수)

6차	평균	7차	평균
가정자원의 활용/자원관리 환경문제	36.0 (21.4)	자원활용과 환경	34.1 (14.5)
자신의 시간/일관리	21.7 (12.9)	청소년의 시간과 일	29.2 (12.4)
소비생활	42.3 (25.1)	나의 소비생활	36.7 (15.6)
총 쪽수	100 (59.4)	총 쪽수	100 (42.5)

과 비중은 〈표 4〉와 같이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가정자원의 활용/자원관리 환경문제, 자신의 시간/일관리, 소비생활로 나뉘어져 있고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자원활용과 환경, 청소년의 시간과 일, 나의 소비생활로 나뉘어져 있다. 총 쪽수는 17쪽이 줄었고 영역구성 내용과 비중에서는 소비생활이 줄고 시간과 일관리 영역이 늘어났다.

생활기술(식생활) 영역의 구성 내용과 비중은 〈표 5〉와 같이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는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식습관과 영양문제, 기초식품군/식품의 구입과 보관, 조리의 기초/조리의 원리/음식만들기로 나뉘어져 있고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는 청소년의 영양/식단작성과 식품의 선택, 청소년의 식사/식사준비와 평가, 조리의 기초와 실제/가족을 위한 상차림과 식사예절로 나뉘어져 있다. 총 쪽수는 39쪽이나 줄어 전체 영역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영역구성 내용과 비중에서도 차이를 보여 실습내용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기술(의생활) 영역에서의 구성 내용과 비중은 〈표 6〉와 같이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는 의복의 의미, 상황과 의복/옷감의 이해, 의복계획/기성복의 구입과 평가, 의복의 착용법, 소품만들기로 나뉘어져 있고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의복과 생활, 의복마련 계획과 구매, 의복의 손질과 보관, 반바지 만들기와 수선타기의 4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 쪽수는 20쪽이 줄어 전체 영역 중 식생활 다음으로 많이 줄었다. 영역구성 내용과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주생활 영역에서의 구성 내용과 비중은 〈표 7〉과 같이 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는 주거와 가족생활, 주거공간의 활용, 실내환경의 조절로 나뉘어져 있고,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생활공간의 활용, 실내 환경과 설비, 주택의 유지와 보수의 3가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총 쪽수는 36쪽에서 46.1쪽으로 6차 보다 7차에서 비중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쪽수도 평균 10쪽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생활이

〈표 5〉 식생활 영역의 구성내용 및 비중

(단위 : %, () : 쪽수)

6차	평균	7차	평균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식습관과 영양문제	25.9 (21.3)	청소년의 영양/식단작성과 식품의 선택	36.2 (15.8)
기초식품군/식품의 구입과 보관	26.0 (21.4)	청소년의 식사/식사준비와 평가	30.2 (13.2)
조리의 기초/조리의 원리/음식만들기	48.1 (39.5)	조리의 기초와 실제/가족을 위한 상차림과 식사예절	33.6 (14.7)
총 쪽수	100 (82.2)	총 쪽수	100 (43.7)

〈표 6〉 의생활 영역의 구성내용 및 비중

(단위 : %, () : 쪽수)

6차(영역)	평균	7차(영역)	평균
의복의 의미, 상황과 의복/옷감의 이해	33.3 (23.8)	의복과 생활	30.4 (15.7)
의복계획/기성복의 구입과 평가	24.6 (17.6)	의복마련 계획과 구매	22.1 (11.4)
의복의 착용법	19.5 (13.9)	의복의 손질과 보관	22.5 (11.9)
소품만들기	22.5 (16.1)	반바지 만들기와 수선하기	24.9 (12.9)
총 쪽수	100 (71.4)	총 쪽수	100 (51.6)

〈표 7〉 주생활 영역의 구성 내용과 비중

(단위 : %, () : 쪽수)

6차	평균	7차	평균
주거와 가족생활	33.3 (11)	생활 공간의 활용	45.03 (20.5)
주거 공간의 활용	30.2 (10)	실내 환경과 설비	28.43 (13.1)
실내 환경의 조절	36.5 (12)	주택의 유지와 보수	26.54 (12.5)
총 쪽수	100 (33)	총 쪽수	100 (46.1)

실린 학년은 6차나 7차 모두 3학년이다.

3) 학년별 활동 및 실험·실습 수와 주제

학년별 활동 및 실험·실습 수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년별 활동 및 실험·실습 수

(단위 : 개)

학년	활동 및 실험·실습 수	평균	
		6차	7차
1	활동	14.9	29.3
	실험·실습	9.1	10.4
2	활동	9.1	30.8
	실험·실습	5.8	8.8
3	활동	10.8	24.0
	실험·실습	3.9	10.7

표에서와 같이 교과서의 전체 쪽 수가 6차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개 교과서 모두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영역별 활동 및 실험·실습의 주제도 매우 다양해져서 실천교과로서의 가정 교과의 위상에 한 층 더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4)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수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수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이 그림과 사진은 6차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반면, 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에서는 사진이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의생활 단원과 식생활 단원 사진의 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주생활 단원에서는 그림과 사진이 거의 배가 증가하였다.

〈표 9〉 영역별 그림, 사진, 표의 수

(단위 : 개)

평균	영역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	생활기술 (식생활)	생활기술 (의생활)	가족생활과 주거(주생활)	계
6차	그림	9.9	19.9	28.2	50.1	31.6	139.7
	사진	1.9	9.7	47.1	34.2	44.1	137.0
	표	1.1	2.8	7.5	2.4	10.3	24.1
7차	그림	24.1	32.1	29.6	55.8	75.9	161.7
	사진	19.4	27.6	91.4	92.0	79.8	218.2
	표	0.6	2.6	11.0	5.3	4.8	19.0

VI. 결론 및 제언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가정 교과서는 연구 결과와 같이 종전의 교과서에 비해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에서는 모든 연구 대상 교과서가 결표지, 면지,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차, 부록, 면지를 제외한 각각의 쪽수가 모두 같고, 머리말의 내용 구성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진들의 창의성 발휘를 위해 체제의 제한점들이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였으나 주제의 도입과 본문에서 집필자의 의도와 강조점이 잘 나타나 있었다. 특히 본문의 전개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참여를 유도하고 있었고, 〈만화로 여는 세상〉, 〈먼저 읽기〉, 〈생각열기〉 등의 도입과 활동 제시의 방법들 또한 다양하여 집필자의 아이디어가 보이기도 하였다.

교과서의 집필자의 수는 1학년 교과서의 경우는 총 27명, 2학년 교과서의 경우는 총 25명, 3학년 교과서의 경우는 총 27명으로 평균 26.3명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1학년 67%, 2학년 60%, 3학년 60% 정도가 교육 현장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교육 현장의 기본 자료인 교과서 개발에 현장 교사의 참여가 예전에 비해서는 증가한 점과 더불어 중학교 교사의 참여가 증가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영역 구성의 특색

은 1, 2, 3학년에 분산되지 않고, 영역별로 분리하여 한 학년에 집중되어 효율을 높인 점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양이 1/3 정도 줄었지만, 가족 생활 영역을 늘려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 소단원의 영역 구성 비중은 6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자원활용과 관리 영역에서 소비 생활이 줄고 시간과 일 관리 영역이 늘어났다.

학생들이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료인 활동 및 실험·실습 수는 6차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교과서별로 차이가 컸다. 대체로 이론 수업에 치중하기 쉬웠던 가족과 일의 이해 단원에 '활동'이 증가하여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시도할 수 있고 단순 기능보다는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실생활에 적용하는 힘 등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사진, 표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그림, 사진, 표의 수도 상당히 증가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언을 한다면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내용 체제 및 양적인 비교 분석이므로 질적인 면의 절대적인 비교 준거는 될 수 없지만, 각 교과서의 특성들이 차후 교과서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과 교사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가정교과서는 기술교과와 병합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개발상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병합되어도 교과서는 분리 편찬될 수 있는 1교과 다교과서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현장 교사를 비롯한 교과 교육 전문가가 교과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교과서 개발은 연구와 노

력에 의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교과 담당자들의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 투고일자 : 2004년 10월 15일

참 고 문 헌

- 김철성(1993). 국민학교 교과서의 외형적 체계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재희(1993). 한국의 교과서 정책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인경 외(1991). 중학교 가정교과서의 국제비교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
- 윤인경 외(1990).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국제비교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
- 윤인경(1996).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 윤인경(1996).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I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2)
- 윤인경(1997). 중학교 가정교과서 분석연구(III).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
- 권리라·윤인경(1998). 중학교 가정교과서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체제,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제 6차 교과서와 비교해 봄으로써 일선 가정과 교사의 새 교과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교수·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료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12종 교과서 가운데 8개 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 영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가정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 비해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체제와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전체적 체제에서는 모든 연구 대상 교과서가 결표지, 면지, 속표지, 머리말, 목차, 부록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차, 부록, 면지를 제외한 각각의 쪽수가 모두 같고, 머리말의 내용 구성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교과서의 단원별 체제는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하였으나 주제의 도입과 본문에서 집필자의 의도와 강조점이 잘 나타나 있었다. 교과서의 집필자 가운데 교육현장의 중·고교 교사 참여가 예전에 비해서는 증가한 점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영역 구성의 특색은 1, 2, 3학년에 분산되지 않고, 영역별로 분리하여 한 학년에 집중되어 효율을 높인 점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실제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료인 활동 및 실험·실습 수는 6차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교과서별로 차이가 컸다.